

## 고난 속에 깨닫게 하시는 말씀

시편 119:65~88

시편 119편의 여섯 번째 주제는 ‘고난 속에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난이란 한마디로 고통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있고 예외 없이 모두 고통을 겪습니다. 아름드리나무의 심층부에 새겨진 나이테처럼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고난이 항상 무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삶에 긴장을 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교육하는 훌륭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고난 속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 세 가지 이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첫째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67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이 있기 전에 마음대로 살면서 그것이 인생인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가운데 가르치실 수 없는 교훈을 고난으로 가르치십니다. 특히 죄에 대한 심판을 깨닫게 합니다. 형통도 하나님의 가르침이지만, 고난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형통할 때 타락할 수 있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69절과 78절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엿드려뜨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둘째 이유는 ‘악인들의 공격, 사단의 공격’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하는 자, 마귀에게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들의 공격 때문입니다. 그들은 없는 것을 지어내 거짓말하고 중상 모략합니다. 우리를 절망의 수렁에 빠뜨리고 좌절하게 하며,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세상은 더욱 핍박을 가해 옵니다. 우리가 믿음에 거하겠다는 것을 세상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없이 살고 있다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한번쯤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이 없기를 기도할 게 아니라, 고난과 핍박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고난과 핍박이 없다면 죽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7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셋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유익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고통, 환난, 핍박, 좌절 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학교에서 당신의 뜻을 밝히시고 놀라우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고난이라는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크나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바치라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올랐습니다. 아들이 ‘장작과 번제단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고 말하고 고통 속에서 이삭을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거두게 하시고 수풀에 걸려 있는 숫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식을 죽여야 하는 고난의 심연으로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는 귀한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고난이 주는 교훈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도망친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는 양을 치며 40년 동안 유리하는 이유를 몰랐지만,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고난으로 자신을 훈련시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당시에는 괴롭고 힘들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으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71절 말씀처럼 고난은 징계고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유익이기도 합니다.

고난으로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하나, 고난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75절 말씀을 표준새번역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주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만약 풍족한 재산을 얻을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풍족한 재물이 우리를 나태하고 진리에서 떠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난을 주십니다.

교만과 거짓과 재물보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가난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신앙이란 환경에 영향을 받거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환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징검다리입니다.

뉴욕의 장애인센터에 작가 미상의 시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시에서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나의 마음속에 진작 표현 못한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난, 아픔, 고통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사랑과 보호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와 징계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어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으로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 가정, 직장, 사업 문제 등으로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8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

돌,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이 엄습해 오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깨우치게 하는 과정입니다. 고난은 꽃을 피우기 위한 폭풍우이며 단단한 열매를 맺게 하는 뜨거운 햇빛입니다. 고난으로 과거의 잘못된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이 순종으로 되고, 게으름과 태만이 성실과 열심이 되게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우리의 모난 부분 다듬으십니다. 우리는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해 정금으로 제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농업 용어 중에 ‘춘화처리’가 있습니다. 농작물의 싹이나 씨를 고온이나 저온으로 처리해 발육에 변화를 줘 수확기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밀이나 보리는 겨울을 지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밀농사를 짓는 것을 봤습니다. 옥수수를 추수한 밭에 밀을 심으면 조그만 싹을 틔운 채 겨울을 납니다. 싹에 물을 주는데 밤 기온이 내려가면 눈꽃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엷니다. 만약 그것을 안쓰럽게 여겨 온실로 가져와 키우면, 봄에 추수할 때 추운 겨울을 보낸 밀과 차이가 납니다. 온실에서 자란 것은 껌부기처럼 열매가 영글지 않습니다.

밀이나 보리는 찬바람을 맞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힘든 역경을 딛고 성공했기에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가 위인들에게 감동하는 것은 그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성숙되고 다듬어져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과 병으로 육체도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난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 많은 것을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고난을 겪으면서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녀, 명예,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한 순간에 데려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 고난을 이기는 방법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선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81절에서 8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중의 가죽병 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 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81절에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든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고난과 핍박으로 지친 상태에 있습니다. ‘피곤하다’는 표현은 육체적 허약함과 정신적 곤핍 상태를 의미합니다. 82절에서 ‘피곤하다’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83절에서 자신의 모습이 ‘연기 중의 가죽병’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죽병을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채 연기에 그을려 색깔이 퇴색하고 갈라져 못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죽병을 뜨거운 불기운에 그을려 말라 쪼그라들어 사용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쓸모없게 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난의 고비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점치는 여자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밖에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정신을 잃을 만큼 몰매를 맞고 음습한 감옥에 갇히는 수난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며 발에 채워진 차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상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마치 불기운에 그을린 가죽병과 같은 우리를 지켜 주는 것은, 최악에서 최선의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고난은 아프고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굳건히 선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86절 말씀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둘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봄으로써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때는 언제나 정확하며, 계획은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시편 37편 23과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 뜻이 없는 고난은 없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조차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아침과 저녁이 한결 같으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다시 만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요셉이 당한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유대 청년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요셉에게 고난이라는 길을 통해 이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이뤄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찾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찾아옵니다. 또한 악인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강하게 연단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의로우신 오른팔로 붙드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고난을 이겨낼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인내와 순종과 용기를 주시고

능히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